

세종시 후퇴하고 4대강 국민 이해 얻기?

■ 與 일각, 원안 유지 가능성 잇단 발언 배경

“밀어붙이기 보다 국민 선택에...” 관측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 원안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서 모든 성의를 들이 국민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안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했던 복수 인사들의 전언을 통해 2일 확인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는 등 원론적 입장 표명을 했다.

한 참석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세종시 관련 언급을 하면서 답답하고 여유가 있었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결국은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 정중한 국무총리도 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질문에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간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도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세종시 문제는 국민과 충청도민이

찬성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내놓았는데 충청도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대안을 밀고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수정안을 내놓은 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나 여론 향배가 우호적이지 못할 경우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여권 핵심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정부가 이른바 ‘세종시 출구전략’을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는 애초 여권이 세종시 수정 논란을 일으킨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권의 공격을 분산시키고 세종시 사업에 대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반대 급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노린 고도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국민 설득을 잘하라는 원칙적 이야기일 뿐 후퇴 가능성을 벌써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종시 수정 필요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여론 사안 이든 국민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농성 3인방 격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정실 앞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을 격려했다. 이날 국회 사무처는 경위 30~40명을 동원, 국회의정실에서 미디어관련법 재논의를 주장하던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연합뉴스

민주-선진, 세종시·4대강 연대 ‘엇박자’

민주 4대강 예산처리 ‘올인’

선진 세종시 수정저지 총력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수정 저지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삭감을 위해 연대에 나섰지만 좀처럼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양 측의 썬밭이 다르게 작용하면서 공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장 예정된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4대강 예산

문제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반면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제각각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민주당의 4대강 국정조사 공조 제안에 대해선 선진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선진당이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정중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제출 방침을 밝힌데 대해선 민주당은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양당의 연대가 전방위적 수준으

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는 지지 기반과 정체성이 다르다는 근본적 이유 외에 세종시 수정 이슈를 둘러싼 수도권 경쟁과도 무관치 않다.

내년 초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일단 공동전선을 구축하긴 했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양 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장외 투어도 각각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양 당의 공조는 원내라는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세종시 무분별 특혜 철회하라”

혁신도시건설 의원모임

국회 혁신도시건설촉구 의원모임(대표 최인기 의원·사진)은 2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성격 변경을 위한 정부의 각종 특혜 부여 방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도시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반드시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내 부지매입 완료 ▲대통령 주재 이전기관장 회의 개최 ▲‘수정 세종시’에 대한 특혜 철회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세종시 수정 방향과 관련, “정부의 세종시 수정 정책이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하는 수정 세종시의 입주기법 및 기관·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특혜부여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야당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에서 유승민·최구식·김재경·이계진·서병수·정갑윤·이철우 의원 등 친박 및 중립성향 의원 7명이 서명, 논란이 예상된다.

“MB,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공약 지켜야”

이용섭 의원 주장

4일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과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 ‘호남고속철은 임기 중에 건설을 끝내겠다’고 공약한데 이어 ‘예산이 부족하면 석유자금도 끌어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는 지난 4월 이러한 약속을 파기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까지 1년만 앞당겨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광주~목포 구간의 노선을 확정하고 당초 약속대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육의원만으로 시·도 교육위 구성해야”

김영진 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울)은 2일 교육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의원과는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록 했으며 교육위원의 정수는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교육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2~4명까지 선출하고, 교육 경력자가 2분의 1 이상 되도록 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용역 대폭 확대

소방직 전문학원

국립소방학교와 동등 소방특수교육기관 지정 소방채력증정기 무료체험

가정경제인수준 + 고제 6년 무료

6개월 합숙훈련 90만원

이론과 실기 + 동등 무시험 + 채용특성

한빛소방직 전문학원

광주 북구 중앙동 252-0292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고시학원에 있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합격설명회

12월 17(목) 14:30 ~ 17:55 **알고 시작하**

(1월~2월) 2개월 완성반!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만 따르라!

단과 합격특강

SHADOW(요급영어), 빈두판(토기토령) - 선석 선생
국어영웅백, 한국사김영관, 행정법(김영환), 행정학(영승환)

7·9급 종합반 개설 강좌

행정직/세무직/검찰직/법원직/소방직
교육행정직/사회복지직/농업직/기술직/경찰직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강 1월 4일

종합/단과반
첫개강 1월 4일 18:00~22:30

-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 중앙동) 062) 234-0234

메가박스

1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최고급편
2관	닌자어세신 (184)	
3관	2012 (124)	
4관	시크릿 (184)	
5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6관	홍길동의 후예 (124)	
7관	백야행 (184)	
8관	크리스마스캐플 (184) / 시크릿 (184)	
9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 **이프유 주창장 이음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희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희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현역국사거리 ♥전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홍길동의 후예 (124)	
2관	바람 (184)	
3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4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5관	크리스마스캐플 (124)	
6관	2012 (124)	
7관	청담보살 (154) / 2012 (124)	
8관	백야행 (184)	
9관	닌자어세신 (184)	
10관	시크릿 (184)	

한도시람 영화시람 • **전화: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에드미 사이) 매남점 (무역현역앞편)

1588-7941 상담현역점 방방-(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백야행 (184)	
2관	닌자어세신 (184)	
3관	홍길동의 후예 (124)	
4관	청담보살 (154)	
5관	닌자어세신 (184)	
6관	시크릿 (184)	
7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8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9관	2012 (124)	
10관	2012 (12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265 대일 쇼파
• 이동형 상시 & OK 카쉬카드 할인 혜택
• 8미 수령장 289-5757 • 8미 빌링장 262-0825
• 8미 골프장 251-5000 • 8미 당구장

고려시람 고려리움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우문 하미스포텍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닌자어세신 (184)	
2관	2012 (124)	
3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4관	백야행 (184)	
5관	홍길동의 후예 (124)	
6관	청담보살 (154)	
7관	시크릿 (184) / 뉴문: 트와일라잇2 (124)	
8관	시크릿 (184)	
9관	시크릿 (18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형상시 할인혜택
• 세너스북자 사무나(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4)	
2관	2012 (124)	
3관	2012 (124) / 청담보살 (154)	
4관	닌자어세신 (184)	
5관	홍길동의 후예 (124)	
6관	백야행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근,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icinema.co.kr •
충정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 ♥